

#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이 미 화(Mihwa Lee)\*\*

노 지 현(Jee-Hyun Rho)\*\*\*

### < 목 차 >

I. 서론	1. VIAF의 전거형 접근점 비교 분석
II. 전거형 접근점의 이론적 배경	2. 국내 대학의 전거형 접근점 구축 현황
1. FRBR 저작 및 표현형의 식별	IV. 국내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
2. 국제목록원칙(ICP)의 전거형 접근점	1. 전거형 접근점의 식별기능
3. RDA의 전거형 접근점	2. 전거형 접근점의 디스플레이 방안
III. 국내의 전거형 접근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3.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안)
	V.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제적인 목록동향과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목록규칙 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과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 개념모델인 FRBR과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목록원칙(ICP), 그리고 FRBR을 구현하고 ICP를 반영하는 목록규칙인 RDA의 접근점 규칙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에서는 VIAF의 다양한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 편목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이 되는 채택표제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전거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며,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규칙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키워드: 국제목록원칙, 한국목록규칙, 전거형 접근점, 채택표제, 국제가상전거파일

### ABSTRACT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and the choice of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Korean Cataloging Rules, based on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cataloging and the need of rules for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 The Literature review, the case study, and the interviewing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were reviewed in FRBR conceptual model,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 2009, and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VIAF authorized access points were analyzed as case study. Last interview was executed with the representative librarians in 4 University libraries. Through these surveys, new directions and rules of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KCR were suggested. This study could contributed to construct work and expression authorized access points of FRBR, and to set up the selection rules of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KCR.

Keywords: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Korean cataloging rules, Authorized access point, Preferred title, FRBR, RDA, VIAF

\* 본 연구는 2015년 국립중앙도서관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의 FRBR 구현을 위한 방안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leemh@kongju.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2월 26일 •최초심사: 2016년 2월 26일 •게재확정: 2016년 3월 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3.47]

## I. 서론

FRBR, ICP, RDA 등의 국제적인 최신 목록동향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을 2014년에 개정 완료하고, 이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KORMARC) 전거통제용』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목록규칙(KCR4)도 국제적인 목록 동향에 맞춰 FRBR과 FRAD 개념모델을 수용하고자 대폭적인 개정을 준비하면서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목록규칙은 저자기본표목을 적용했던 KCR 초판(1964)과 KCR2(1966)에 이어, 서지기술단위저록으로 기술부와 표목부를 독립시킨 KCR3(1983),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배제한 KCR4(2003)로 변화되어 왔다. 기술로만 구성된 KCR4는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규칙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목록 동향을 살펴보면,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국가도서관은 주된 표준으로 2013년에 RDA를 채택하였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2015년부터 RDA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일본에서는 RDA 평가와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2013년에, 스페인에서는 2015년에 RDA의 번역을 완료하였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는 현재 RDA에 대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RDA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NCR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김정현 2013, 128). 이처럼 전세계 목록규칙에서 저작 및 표현형 집증을 위해 RDA를 바탕으로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DA에서는 FRBR의 저작과 표현형의 식별을 위해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요소와 입력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을 집중시키기 위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저작의 채택표제 +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표현형을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의 속성’의 결합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과 저작 간을 식별하고, 동일 저작 내에 상이한 표현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목록규칙 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과 전거형 접근점의 기반인 채택표제의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 목록의 개념모델인 FRBR과 목록규칙의 지침을 제시한 국제목록원칙(ICP), 그리고

FRBR을 구현하고 ICP를 반영한 목록규칙인 RDA의 전거형 접근점 규칙을 분석하였다. 사례 조사에서는 국외 사례로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면담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의 편목사서를 대상으로 전거데이터의 구축 현황과 전거형 접근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채택표제의 규칙(안)은 한국목록규칙내 전거형 접근점을 규정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 FRBR을 위한 전거레코드 구축이 보다 실효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II. 전거형 접근점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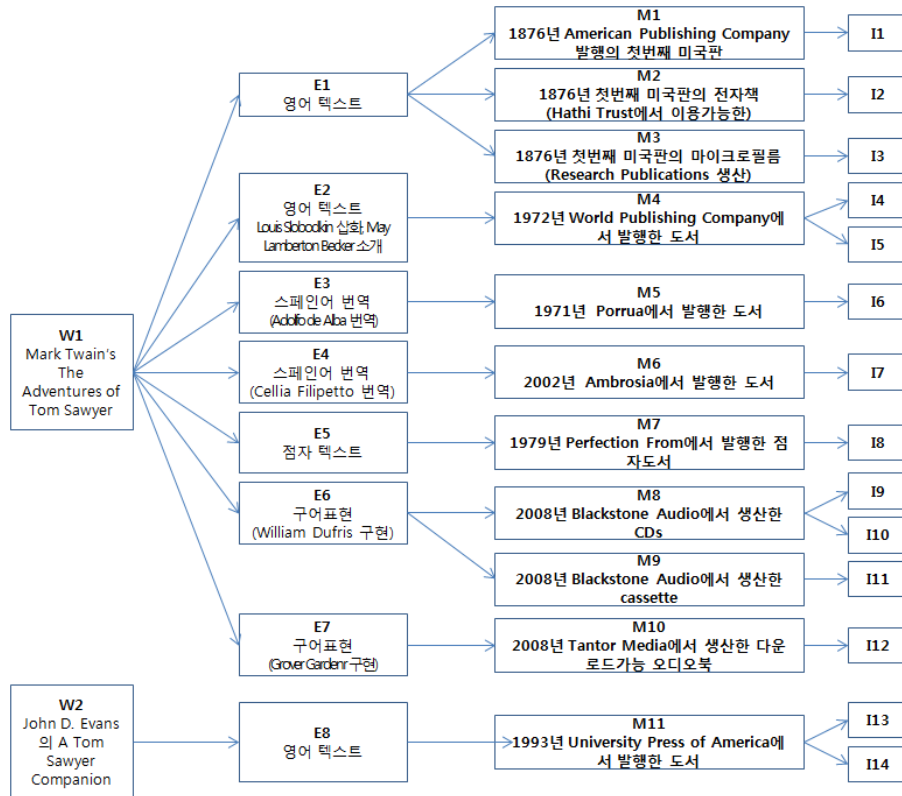
### 1. FRBR 저작 및 표현형의 식별

FRBR은 구현형 단위로 기술된 목록레코드를 저작 및 표현형으로 집중시키고, 서로 다른 저작이나 표현형 간을 구별할 수 있는 개념모델이다. 저작과 표현형의 집중 기능을 위해서는 저작을 식별하고 표현형을 식별하는 데이터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이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톰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를 중심으로 한 서지세계는 Mark Twain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Samuel Langhorne Clemens의 소설로 1876년에 영어로 첫 출간되었다. 이후 오랜 동안 여러 편집자, 삽화가, 출판사에서 이를 인쇄본, 대활자본, 점자, 마이크로폼, 전자책, 오디오책으로 출판하였고, 오디오책은 LP, 카세트, CD, 온라인으로도 발행되었다. 영어 원작은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화란어, 한국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작은 학위논문, 기사, 악보, 영화, 멀티미디어에 영감을 주었고, Don Brochert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and the Undead*에서 좀비 세계에 관한 소설로 각색되었다. 이와 같이 『톰소여의 모험』이라는 서지 세계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Mering 2014, 16-18).

이에 따라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에서 파생된 수많은 번역서, 다양한 포맷으로 작성된 구현형은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저작’으로 집중시키고, 이를 다시 영어, 스페인어, 구어 등의 표현형 단위로 집중시키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그림 1>에서 I1~I12는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저작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영어(E1), 삽화 포함 영어(E2), Adolfo가 번역한 스페인어(E3), Celia가 번역한 스페인어(E4), 점자(E5), William이 구현한 구어(E6), Grover가 구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그림 1>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사례

※출처: Mering(2014)

현한 구어(E7)에 해당하는 표현형으로도 집중되어야 한다. 현행 서지레코드는 구현형 단위이므로 다양한 자료를 구별하는 기능은 우수하지만 저작과 표현형의 집중 기능을 위해서는 저작을 식별하고 표현형을 식별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듯 FRBR의 저작, 표현형으로 집중하는데 있어 저작 및 표현형 정보인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하면, 구현형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목록은 각각의 자료를 식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여러 수록매체에 수록되는 복잡한 서지세계에서 동일한 저작의 자료를 모으기 위한 집중 기능이 요구된다. 구현형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층적 상위 단계로 FRBR에서는 저작과 표현형을 정의하고 있다. 저작의 집중은 저작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며, 저작의 속성이 다르다면 다른 저작으로 집중된다. 저작의 속성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표현되므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저작을 식별하는 중요한 식별 정보이다. 표현형의 속성은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표현되고,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표현형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이다. 따라서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과 표현형 각각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에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2. 국제목록원칙(ICP)의 전거형 접근점

### 가.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ICP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에서 이름이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로 된 경우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IME ICC 2009).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랍어 자료를 목록할 경우 국제목록원칙에 따르면 원어인 아랍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언어이므로 번자하여 전거형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의회도서관에서도 한국어 전거형 접근점이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림 2>와 같이 로마자로 번자된 전거형 접근점을 채택하고 있다.

100 1b	▼ aSin, Kyōng-suk.
240 10	▼ a <b>Omma rūl put'ak hae</b> ▼ lEnglish
245 10	▼ aPlease look after mom : ▼ ba novel / ▼ cKyung-sook Shin ;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그림 2>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 나.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된 이름은 그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써 구현형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된 이름이다. 개인, 가족, 단체가 여러 이형을 사용하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을 근거로 하나의 이름을 선정하고,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도 하나의 표제를 채택한다(IME ICC 2009).

햄릿의 원어명은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이지만 축약형인 *Hamlet*으로 널리 사용된다. 헤밍웨이의 *The Sun Also Rises*는 미국에서 출판되었지만 다음해 영국에서 *Fiesta*로 출판되었다. 이 경우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언어와 문자 중에서 널리 사용되

는 이름을 선정하도록 한다(<그림 3> 참조).

Hamlet	← 원어로 작성된 표제(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 원어로 작성된 표제
<hr/>	
The sun also rises	← 원어로 작성된 표제(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Fiesta	← 원어로 작성된 표제
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 원어로 작성된 표제

<그림 3>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 다.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전거형 접근점의 이름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개인, 가족, 단체와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른다. 저작 및 표현형의 이름 형식은 표제이거나 저작자의 전거형 접근점과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IME ICC 2009, 6-7).

영화와 같이 개인/가족/단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채택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고, 저자가 있는 자원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족/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을 위한 언어와 문자, 이름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지침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기관에서는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언어, 문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널리 알려진 이름을 선정하도록 한 것은 전거형 접근점이 해당 국가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은 사라지고 전거형 접근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거형 접근점 선정시 국가적의 언어 관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미화 2012a, 277). 이에 한국목록규칙에서도 국가나 기관의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게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RDA의 전거형 접근점

#### 가.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접근점은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나뉜다. 전거형 접근점은 표준화된 접근점으로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RDA 5.1).

FRBR의 개념모델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그 기초로 저작의 채택표제를 사용하고, 해당하는 경우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동일한 경우 저작을 나타내는 접근점에 저작의 형식, 저작 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식별 요소를 부가한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반으로 내용유형, 표현형의 언어 등과 같은 표현형을 식별하는 요소를 기록하여 구별한다(RDA 5.5)

예를 들어,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공동저작의 경우,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하는 경우, 주된 책임을 갖는 개인·가족·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영화의 경우는 채택표제만으로 구성한다.

#### 나. 채택표제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채택표제이다. 표제는 채택표제, 이형표제로 나뉘고 채택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의 형식으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기반이 된다(RDA 6.2.2.1).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거나 참고정보원에서 사용을 통해 알려지게 된 원어로 된 표제를 선정한다. 저작이 가장 잘 알려진 표제 중 하나인 원어로 된 표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심스러운 경우, 원본판의 본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RDA 6.2.2.4).

채택표제는 저작과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써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을 위해 채택표제에 대한 언어 및 문자, 선정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저자명의 전거형 접근점은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표제의 전거형 접근점 즉 채택표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Ⅲ. 국내외 전거형 접근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1. VIAF의 전거형 접근점 비교 분석

전거형 접근점을 비교하기 위해 VIAF, 미국의회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대만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테스트)의 사례를 VIAF 검색을 통해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단,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테스트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대만국립도서관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관은 저작+표제 전거레코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국 고유의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 일본, 중국의 저작 전거형 접근점은 VIAF에서 해당 언어별 표현형 데이터에 기술된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1> VIAF내 기관별 전거형 접근점

저작	기관별	저작 혹은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VIAF 저작	100 1b ▼ a신경숙. ▼ 0(viaf)39712268 ▼ 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
	미의회도서관 표현형	100 1b ▼ aSin, Kyōng-suk. ▼ tOmma rül put'ak hae. ▼ lEnglish
	VIAF 일본어 표현형	100 1b ▼ a신경숙. ▼ 0(viaf)39712268 ▼ 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 ▼ lJapanese ▼ s(安宇植 : ▼ f2011)
	VIAF 중국어 표현형	100 1b ▼ a신경숙. ▼ 0(viaf)39712268 ▼ 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 ▼ lChinese ▼ s(徐麗紅 and 薛舟. : ▼ f2010)
	VIAF 저작 한국어	100 1b ▼ a신경숙. ▼ 0(viaf)39712268 ▼ 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VIAF 저작	100 1b ▼ a村上, 春樹. ▼ d1949-. ▼ 0(viaf)108238901 ▼ tノルウェイの森
	미의회도서관 표현형	100 10 ▼ aMurakami, Haruki. ▼ d1949- ▼ tNoruwei no mori. ▼ lEnglish
	NDL(일본) 저작 표제	130 b0 ▼ aノルウェイの森
	VIAF 중국어 표현형	100 1b ▼ a村上, 春樹. ▼ d1949-. ▼ 0(viaf)108238901 ▼ tノルウェイの森
	VIAF 한국어 표현형	100 1b ▼ a村上, 春樹. ▼ d1949-. ▼ 0(viaf)108238901 ▼ tノルウェイの森 ▼ lKorean ▼ f2000
톰소여의 모험/ 마크트웨인	VIAF 저작	100 1b ▼ aTwain, Mark. ▼ d1835-1910. ▼ 0(viaf)50566653 ▼ tAdventures of Tom Sawyer
	미의회도서관 저작	100 1b ▼ aTwain, Mark. ▼ d 1835-1910. ▼ tAdventures of Tom Sawyer
	VIAF 일본어 표현형	100 1b ▼ aTwain, Mark. ▼ d1835-1910. ▼ 0(viaf)50566653 ▼ tAdventures of Tom Sawyer ▼ lJapanese ▼ s(土屋京子 : ▼ f2012)
	VIAF 중국어 표현형	100 1b ▼ aTwain, Mark. ▼ d1835-1910. ▼ 0(viaf)50566653 ▼ tAdventures of Tom Sawyer ▼ lChinese ▼ s(月祺 : ▼ f1932)
	VIAF 한국어 표현형	100 1b ▼ aTwain, Mark. ▼ d1835-1910. ▼ 0(viaf)50566653 ▼ tAdventures of Tom Sawyer ▼ lKorean ▼ s(梁炳鐸 : ▼ f1932)
아큐정전/노신	VIAF 저작	100 1b ▼ a魯迅. ▼ d1881-1936. ▼ 0(viaf)29537230 ▼ t阿Q正傳
	LC(미국)	100 1b ▼ aLu, Xun. ▼ d1881-1936. ▼ tA Q zheng zhuan
	VIAF 일본어 표현형	100 1b ▼ a魯迅. ▼ d1881-1936. ▼ 0(viaf)29537230 ▼ t阿Q正傳 ▼ lJapanese ▼ s(田中清一郎 and 中沢信三 : ▼ f1952)
	VIAF 중국어 표현형	100 1b ▼ a魯迅. ▼ d1881-1936. ▼ 0(viaf)29537230 ▼ t阿Q正傳
	VIAF 한국어 표현형	100 1b ▼ a魯迅. ▼ d1881-1936. ▼ 0(viaf)29537230 ▼ t阿Q正傳 ▼ lKorean ▼ s(金河中 : ▼ f1984)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VIAF에서 검색하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저작의 원어인 한국어 표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국제목록원칙에서 제시한 “해당 국가의 원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정한다는 지침과 일치한다.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에 대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어 원어로 된 전거형 접근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LC에서는 목록 이용자에게 맞게 번자하여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술하고 있다.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Work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Chinese  (徐麗紅 and 薛舟.:2010)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French  (Batilliot and Jeong:2010)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Japanese  (安宇植:2011)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English  (Kim:2011)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Arabic 2011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Spanish  (Echevarría:2011)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Hindi 2012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Indonesian 2011	Expression	VIAF
신경숙.  엄마를부탁해:신경숙장편소설 Italian 2011	Expression	VIAF
Sin, Kyōng-suk.   Ōmma rūl put'ak hae.   Spanish	Expression	LC
Sin, Kyōng-suk.   Ōmma rūl put'ak hae.   English	Expression	LC

※출처: 이미화, 노진영(2015)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을 VIAF에서 검색하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저작의 원어인 일본어 표제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 전거레코드의 표제 전거형 접근점은 채택표제로 자료에 기재된 그대로의 표제를 채택하였다. 반면, LC에서는 목록 이용자에게 맞게 번자하여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술하고 있다.

ノルウェイの森	Work	NDL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Work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Korean   (You : 1989)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Russian   (Zamilov : 2003)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German   (Gräfe : 1998)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Tamil   (சுந்தரமணியன்: 2014)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Korean   (양 역관 : 2013)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Polish   (Marczewska and Zielińska-Elliott : 2006)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Italian   (Amitrano : 1993)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Croatian   (Tančik : 2004)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Vietnamese   (Trinh : 2005)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English   (Birnbäum : 1991)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의 숲   Czech   (Jurkovič : 2002)	Expression	VIAF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Croatian   (Tomić : 2007)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Dutch   (Fennema : 2007)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English   (Rubin : 2000)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Arabic 2007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Slovenian   (Cejan : 2005)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Serbian   (Tomić : 2007)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Korean 2000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Turkish   (Onol : 2004)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Portuguese 2000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Macedonian 2006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Danish 2005	Expression	VIAF
村上, 春樹, 1949-.   ノルウェイの森   Indonesian 2006	Expression	VIAF
Murakami, Haruki, 1949-   Noruwei no mori.   English	Expression	LC
Murakami, Haruki, 1949-   Noruwei no mori.   Spanish	Expression	LC
Murakami, Haruki, 1949-   Noruwei no mori.   Chinese	Expression	LC

※출처: 이미지화. 노진영(2015)

마크트웨인의 『톰소여의 모험』을 VIAF에서 검색하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저작의 원어인 영어 표제를 바탕으로 한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독일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어인 영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Work	LC, VIAF
Twain, Mark 1835-1910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Work	DNB(독일)

※출처: 이미지화. 노진영(2015)

노신의 『아큐정전』을 VIAF에서 검색하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저작의 원어인 한자 표제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어 번역자료와 한국어 번역자료도 원어인 한자 표제를 바탕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의회도서관과 독일국가도서관에서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로마자로 번자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鲁迅, (1881-1936).   阿Q正傳	Work	VIAF
Lu, Xun, 1881-1936.   A Q zheng zhuan	Work	LC
Lu, Xun 1881-1936   A-Q-zhengzhuan	Work	DNB(독일)

※출처: 이미지화. 노진영(2015)

살펴본 바와 같이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은 국제목록원칙을 준용하여 모든 전거형 접근점을 원어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미의회도서관의 전거형 접근점은 국제목록원칙을 준용하

지만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마자로 번자된 전거형 접근점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목록규칙에서도 가능한 국제목록원칙을 준용하여 전거형 접근점으로 원어를 채택하되, 우리나라 목록이용자와 일치하는 않은 경우 다른 형태의 전거형 접근점을 채택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내 대학의 전거형 접근점 구축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 중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언어와 문자)과 국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2>는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국내 4개 대학도서관의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이다. 전거형 접근점은 국내서, 일본서, 중국서, 로마자, 비로마자의 경우로 나누어 질의하였다.

<표 2> 국내 4개 대학도서관의 저자명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S대	Y대	E대	SK대
국내서	한글명	한글명	한글명	한글명
일본서	로마자표기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중국서	로마자표기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로마자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비로마자(CJK제외)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 모두, 국내서의 전거형 접근점은 한글명을 사용하고, 로마자 서양서의 전거형 접근점은 로마자 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제목록원칙을 준용하여 해당 저작의 원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서와 중국서에 대해 1개 대학도서관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으로 로마자를 채택하고, 다른 3개 도서관에서는 한자의 한글음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일본서, 중국서는 저작의 원어를 준용하지 않고 국내 목록이용자에게 맞게 한글 형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한 비로마자의 경우에는 전거형 접근점으로 모두 로마자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어가 국내 목록이용자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키릴문자나 아랍문자를 한글 형식으로 번자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의회도서관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로마자 번자 형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한 바와 같이 외국서의 경우 로마자만 원어 표기를 적용하고, 일본서와 중국서는 한글로 변환하고, CJK를 제외한 비로마자는 원어도 한글 표기도 아닌 로마자로 번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논쟁이 많은 일본서, 중국서에 대해 전거형 접근점으로 로마자를 채택하고 있는 1개 대학도서관은 미의회도서관 전거레코드의 로마자 전거형을 채택하므로 전거형 접근점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고, 전거레코드 작성에 소요되는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였다. 이 도서관에서는 중국인, 일본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자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나머지 3개 대학도서관에서는 일본서, 중국서를 동양서로 취급해 왔고, 이에 따라 통합서지용 KORMARC과 국내 도서기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서와 같이 한자를 한글음으로 번자한 표기를 전거형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한자의 한글음을 채택한 도서관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한자를 찾아서 이를 한글로 음독하여 기록하는데, 최근에는 인명을 한자보다는 발음나는 대로 기록하고 있어 한자의 한글 음독도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명은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한글음독이 가능하지만 표제의 경우 일본서는 히라가나 혹은 가다가나로 구성되어 있어 한자의 한글 음독을 기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거형 접근점의 규칙으로 일본서, 중국서의 경우 한자명의 한글음이 아닌 '원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전거형 접근점의 규칙이 제정되면 '원어명'으로 변환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현장에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번자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오히려 원어를 채택하는 방식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가의 전거형 접근점이 로마자는 원어, 중국서 및 일본서는 한자의 한글음으로 읽어 처리하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다.

종합하면, 전거형 접근점은 자원을 집중하고 자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거형은 일정 정도 통일된 형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의 선정은 앞으로 국내 도서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IV. 국내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

### 1. 전거형 접근점의 식별기능

FRBR 저작의 집중을 위해 RDA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의 요소와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요소는 채택표제, 형식, 일자, 원생산지, 기타 식별

특성, 저작내력, 식별기호이며, 이 중 저작의 채택표제, 식별기호는 핵심요소이다. 수많은 구현형 레코드를 저작의 채택표제만으로 저작 간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사항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의 형식, 저작의 일자 등을 추가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게 된다.

전거형 접근점의 기능은 저작을 구현한 모든 자원의 기술을 불러 모으는 일, 식별하는 일, 구별하는 일, 계층적 디스플레이를 조직하는 일, 관계를 기록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표현형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 간의 식별하기 위해서 전거형 접근점은 통일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실 전거형 접근점의 제어 방식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Niu(2013)이 정리한 접근점 제어를 위한 6가지 방안 중 제6접근방식은 전거레코드나 접근점레코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동일 저자가 쓴 저작의 서지레코드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목록자는 자료에 나타난 이름 그대로 기술하고,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전거형 이름 표목을 선정하거나 형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노지현, 이미화 2014, 66). 물론 전거형 접근점 제어는 다양한 링크를 통해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시대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저작의 집중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인용을 위해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화 2012a, 278).

저작의 식별을 위해서는 유일한 식별 정보가 필요한데 전거형 접근점에 관련된 논쟁은 첫째, 전거형 접근점의 식별을 식별기호로 할 것인지 채택표제로 구성된 문자열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모든 도서관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전거형 접근점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전거형 접근점을 채택표제로 구성된 문자열로 구성하든 식별기호로 처리하든 저작, 표현형을 구분하고 모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저작의 식별, 검색이 식별기호로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 기호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식별기호만으로 이용자가 저작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호체계보다는 문자열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거형 접근점을 단순히 기호체계로만 작성할 때 이용자의 이해 및 해독력이 어렵고, 기타 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거형 접근점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도서관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전거형 접근점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거형 접근점을 저작을 식별하는 유일한 문자열로 간주하되, 이를 디스플레이와 별개로 취급한다면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문

자), 선정, 형식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전거형 접근점은 국가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저작 간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용자 화면상에는 전거형을 비롯하여 해당 도서관에서 선호하는 이형의 접근점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거형 접근점이 해당 도서관과 맞지 않는다 해도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기술을 디스플레이와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표현형을 식별하는 식별기능을 하는 문자열로 이를 자원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별개로 취급한다면, 논쟁이 되었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전거형 접근점의 디스플레이 방안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과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RDA에서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RDA 9.2.2.3, 10.2.2.3, 11.2.2.3), 그리고 저작의 채택표제는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나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의 본표제”, “먼저 입수된 자원의 본표제”(RDA 6.2.2.4) 등을 채택표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전거형에 대한 기술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현실에서 도서관마다 선호하거나 실제 적용하고 있는 전거형의 형식은 매우 상이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수준이나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전거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일관성 있게 작용하되 도서관에서 보다 선호하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체 형식의 디스플레이 방안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과 저작의 채택 표제, 그리고 이형명과 이형 표제에 모두 식별기호 ▼9를 활용하여 ‘언어 부호’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신경숙”에 대한 채택명과 이형을 기술할 때, 각 필드의 마지막에 ▼9 언어 부호를 기술한다. 만일 특정 기관에서 채택명으로 기록된 “신경숙”이 아니라 영어로 된 채택명인 “Shin Kyung-sook”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호하는 경우 “▼9en”을 식별하여 해당 필드에 기술된 데이터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디스플레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전거형 접근점은 기술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입력하되 디스플레이 시 각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지정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는 검색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름명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병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00 1℔	▼ 6880-01 ▼ a신경숙
375 1℔	▼ a2 ▼ 2iso5218
400 1℔	▼ aК у н - С у у к , Ш и н
400 1℔	▼ aShin Kyong-suk ▼ cécrivain sud-coréenne
400 1℔	▼ aShin Kyung-sook ▼ cKorean writer
400 1℔	▼ a申京淑
400 1℔	▼ aShin Kyung-sook ▼ cs ø rkoreansk skribent
400 1℔	▼ aSin Kyong-suk ▼ csüdkoreanische Schriftstellerin
400 1℔	▼ aKyung-Sook Shin ▼ csydcoreansk författare
400 1℔	▼ aكيونغ سوك شين
<b>880 1℔</b>	<b>▼ 6100-01/(▼ a 申京淑)</b>

<그림 5> 880 필드를 적용하는 방안(1)

100 1℔	▼ <b>6880-01</b> ▼ a夏目漱石
400 1℔	▼ a나츠메 소세키
400 1℔	▼ a나쓰메 소세키
400 1℔	▼ a나츠메 소오세키
400 1℔	▼ aNatsume, Sōseki
400 1℔	▼ aН а ц у м э , С о с э к и
400 1℔	▼ a하목수석
500 1℔	▼ a塩 原金之助
880 1℔	▼ <b>6100-01</b> /(▼ a나츠메 소세키)

<그림 6> 880 필드를 적용하는 방안(2)

### 3.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안)

#### 가.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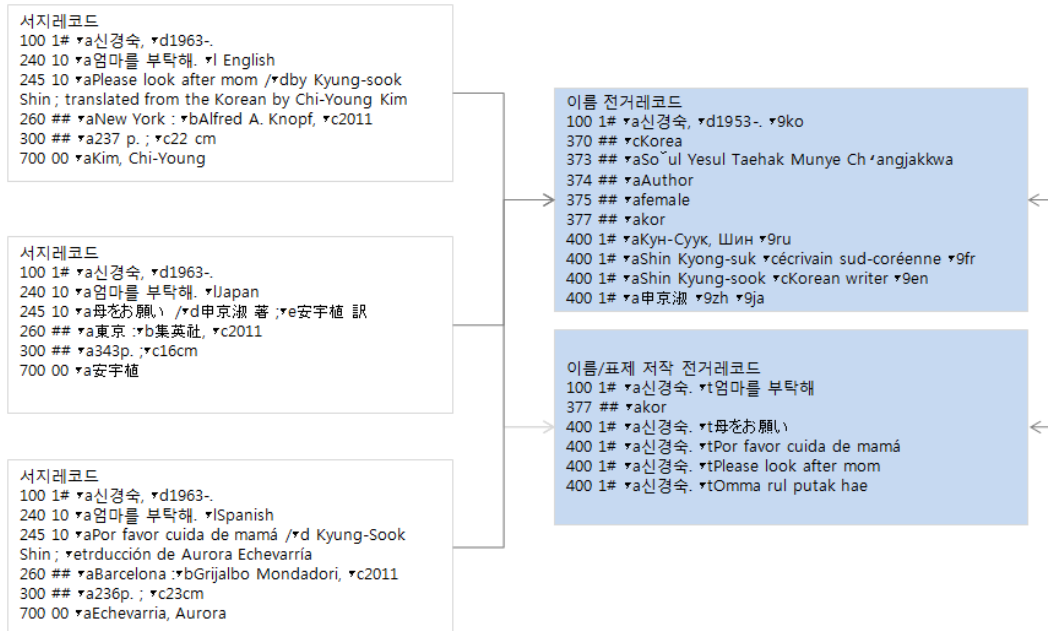
전거형 접근점이 저작 및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기능임을 인식하고,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기술을 디스플레이와 분리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거형 접근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제안은 기본적으로 국제 목록원칙에서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을 준용하도록 한다.



-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된 채택표제는 그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근거로 해야 한다.
-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입수된 첫 번째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되는 이름(예를 들어, 관용명)이어야 한다.
-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사용한다.
- 가장 잘 알려진 표제 중 하나인 원어로 된 표제가 없는 경우 혹은 의심스러운 경우 원본 판의 본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 전거형식의 이름이나 이형의 이름 중 하나에는 가능하면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안)에서는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목록원칙과도 부합하며, 과거에는 비로마자를 입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자를 사용했지만 현재와 같은 컴퓨터 환경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Bourdon & Boulet(2011)에 따르면, 서양 국가도서관에서 번자를 사용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초기 컴퓨터는 유니코드 방식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마자를 관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비로마자를 가능한 원어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번자 형식을 개발하여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비로자마의 채택표제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원어를 이형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VIAF에서는 가능한 원어를 전거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엄마를 부탁해』에 해당하는 구현형의 표제는 『Please look after mom』, 『Por favor cuida de mamá』, 『母をお願い』와 같이 다양하다. 이를 위한 채택표제는 구현된 자원(입수된 첫 번째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인 『엄마를 부탁해』이고, 해당 언어나 문자는 우리나라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므로 『엄마를 부탁해』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또한, 저작 집중을 위해 저작의 채택표제는 서지레코드 240과 저작 전거레코드에 각각 기술한다.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은 전거레코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름 전거레코드에는 ‘신경숙’을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에는 ‘신경숙 + 엄마를 부탁해’로 작성한다. 이형에는 구현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름을 기술한다.



〈그림 7〉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

나. 각 언어 및 문자별 세부사항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한·중·일을 제외한 비로마자자로 된 자료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채택표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국내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알려진 한글표기 형식의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로 한글표기 형식을 선택한다.
- 국내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한자 및 로마자 표기를 가능한 이형에 기술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 ▼a이광수, ▼t <b>무정</b>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400 1# ▼a이광수, ▼t無情	← 저작의 이형 접근점
400 1# ▼a이광수, ▼tMujong	
400 1# ▼a이광수, ▼tMuchöng	
※ 자원에 無情으로 기재되어 있음.	

- 중국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알려진 중국어 원어로 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원어의 한자를 그대로 기술하되 간자체가 없는 경우, 이를 한자로 변환하여 기술할 수 있다.
-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ℳ	▼ a魯迅, ▼ d1881-1936. ▼ t阿Q正傳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400 1ℳ	▼ a魯迅, ▼ d1881-1936. ▼ t아큐정전	← 저작의 이형 접근점
400 1ℳ	▼ a魯迅, ▼ d1881-1936. ▼ t아Q정전	
400 1ℳ	▼ a魯迅, ▼ d1881-1936. ▼ tA Q zheng zhuan	

- 일본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알려진 일본어 원어로 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ℳ	▼ a村上春樹, ▼ d1949-. ▼ tノルウェイの森	← 원표제
400 1ℳ	▼ a村上春樹. ▼ t노르웨이의 숲	← 한국어 표제
400 1ℳ	▼ a村上春樹. ▼ t상실의 시대	← 다른 한국어 표제
400 1ℳ	▼ a村上春樹. ▼ tノルウェイ ノ モリ	← 일본어 가나
400 1ℳ	▼ a村上春樹. ▼ tNoruei no mori	← 로마자 번자

- 로마자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 표제를 선택한다.
-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예시 : Sun also rises		
100 1ℳ	▼ aHemingway, Ernest, ▼ d1899-1961. ▼ tSun also rises	
400 1ℳ	▼ aHemingway, Ernest. ▼ 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400 1℥	▼ aHemingway, Ernest. ▼ t태양은 다시 뜬다
400 1℥	▼ aHemingway, Ernest. ▼ t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
400 1℥	▼ aHemingway, Ernest. ▼ t해는 다시 떠오른다
400 1℥	▼ aHemingway, Ernest. ▼ t太阳照样升起
400 1℥	▼ aHemingway, Ernest. ▼ t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400 1℥	▼ aHemingway, Ernest. ▼ tFiesta

- 한국, 중국, 일본 저작을 제외한 그리스문자, 힌디어, 아랍문자, 키릴문자, 티베트문자, 히브리문자 등으로 된 비로마자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알려진 로마자로 번자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영어로 번자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 로마자 번자 표제와 로마자 의미적 표제 중 번자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록한다.
- 이형에는 해당 언어의 원어를 반드시 기술한다.
-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	▼ aMaḥfūz, Najīb. ▼ d1911–2006. ▼ t <b>Awlād ḥāratinā</b> ← 로마자 번자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اولاد حارتنا رواية ← 원어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Children of the alley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Children of Gebelawi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Children of Gebelaawi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우리 동네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400 1℥	▼ aMaḥfūz, Najīb. ▼ t게벨라위의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규칙의 통일성을 위해 국내서, 일본어, 중국어, 로마자는 모두 원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내 목록이용자를 고려하여 CJK를 제외한 비로마자의 경우 로마자 번자 표제를 제안하였다.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번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로마자를 로마자로 번자한 표제를 채택표제로 제안하였다. 예시와 같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입력하는 아랍어는 입력이 매우 어렵고 국내 목록이용자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언어 혹은 문자이다. 국제목록원칙에서는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정할 수 있으며, 번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른다.” 고 규정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한 로마자 번자를 제안하였다.

## V. 결론

FRBR, ICP, RDA 등의 국제적인 최신 목록동향의 영향으로 한국목록규칙(KCR4)도 국제적인 목록 동향에 맞춰 FRBR과 FRAD 개념모델을 수용하고자 대폭적인 개정을 준비하면서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목록동향과 한국 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목록규칙 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과 전거형 접근점의 구체적인 규칙 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 목록의 개념모델인 FRBR, 목록규칙의 지침을 제시한 ICP 2009, FRBR을 구현하고 국제목록원칙을 반영한 목록규칙인 RDA의 접근점 규칙을 분석하고, 사례조사에서는 국외 사례로 VIAF의 전거형 접근점을 분석하고, 면담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 편목사서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VIAF를 분석한 결과 VIAF는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규정한 대로 원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LC의 경우는 로마자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거레코드에 구축된 전거형 접근점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국내서는 한글, 로마자와 CJK를 제외한 비로자는 로마자로 일치되었지만 일본어와 중국서는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이 되는 채택표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표현형을 구분하고 모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식별 문자열 체계로 취급하고,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 선정, 형식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형식을 디스플레이와 독립시켜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은 기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거형 접근점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각 기관은 기관에 맞게 전거형 접근점이외에 다른 접근점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것이다. FRBR의 최종 목적은 목록이용자이며, 이용자를 위한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다. FRBR의 저작 집중을 위한 전거형 접근점은 각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지만 디스플레이는 기관이 원하는 접근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언어 환경에 따른 전거형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선호하는 형식으로 전거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이 작성되어야 한다.

채택표제의 규칙으로 원어가 일본어, 중국어, 로마자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에도 채택표제는 모두 원어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CJK를 제외한 비로마자의 경우 로마자 번자 표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전거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며, 한국목록 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저작, 표현형을 위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노지현, 이미화. 2014. 국제 목록 동향을 반영한 「KORMARC-전거통제용」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61-84.
- 이미화. 2012a.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1-280.
- 이미화. 2012b.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 이미화, 노진영. 2015. 한국목록규칙의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연구.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2015년 10월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341-360.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ourdon, F. & V. Boulet. 2011. "VIAF : A Hub for a Multilingual Access to Varied Collections." *Proceedings of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7<sup>th</sup>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in Puerto Rico*. <<http://conference.ifla.org/past-wlic/2011/79-bourdon-en.pdf>> [cited 2016. 1. 14].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4.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2014 Revision*. NY: ALA, CILIP, CLA.
- Mering, M. 2014. *The RDA Workbook*.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 IME ICC. 2009.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2011. 10. 2].
- Niu, J. 2013. "Evolving Landscape in Name Authority Control."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51(4): 404-41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ing Committee.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Four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hwa & Jin-Young Ro. 2015. "A Study on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Korean Cataloging Rules." 52nd KLA General Conference, 2015. 10. 22. Incheon: Songdo Convensia, 341-360.
- Lee, Mihwa. 2012a.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61-280.
- Lee, Mihwa. 2012b.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5-22.
- Rho, Jee-Hyun & Mihwa Lee. 2014. "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MARC-Authority Format b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of Authority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61-84.

